第262回國會
(定期會)

民族和解와 繁榮을 위한 南北平和統一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9月20日(水)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 2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배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분주하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부득이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1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무리하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성공단사업소위원회, 농업기반조성사업소위원회, 보건·의료협력소위원회, 금강산관광·문화교류발전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4개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수, 위원 배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사 간 합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사업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위원이, 농업기반조성사업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우윤근 위원이, 보건·의료협력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이, 금강산관광·문화교류발전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안경률 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4개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대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제가 비교섭단체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비교섭으로 밀어낸 것인지……

○위원장 배기선 죄송합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요새 한나라당에서 많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요.

○위원장 배기선 죄송합니다. 이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다시 한번 정정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사업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오영식 위원, 그리고 소위원에는 열린우리당의 최성·지병문 위원 두 분, 그리고 한나라당에는 정희수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천영세 위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 착오……

○송영선 위원 사무 착오면 괜찮고 정말 그런 식으로 밀어내면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제가 사전에 이것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4개 위원회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끝에 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참으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7000만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지켜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한반도를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4강을 우리가 잘 협력하고 특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의 이런 민족적인 염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국회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개 소위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관심사항과, 그리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남북특위가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이번에 북한의 수해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같은 이런 특위 차원의 사업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소위원장님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보건·의료협력소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보건·의료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심 위원님과 유승희 위원님, 이상경 위원님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남북 평화에 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북쪽의 여러 가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들을 남북이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저희 남북관계특위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우윤근 위원장님!

○우윤근 위원 반갑습니다. 우윤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낙연 선배님, 심재엽 위원님, 또 동료 위원인 김형주 위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님, 금강산관광·문화교류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남북관계특위에서 오랫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장님, 문화교류가 체육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위원장 배기선 그렇습니다.

○안경률 위원 금강산 관광, 문화·체육 교류가 우리의 민족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장님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10시20분)

○위원장 배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 중이고, 또 제1차관이신 유명환 차관께서는 총리 순방 수행 중이고, 또 제2차관이신 이규형 차관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회의가 진행 중인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될 만한 회의여서 윤병세 차관보가 보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통일부 관련 사항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신언상 통일부차관이 출석하고 계심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차관보 나오셔서……

○孔星鎭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예.

○孔星鎭 委員 공성진 위원입니다.

오늘 통일부 보고는 장관께서 나오지 않고 신 차관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배기선 아닙니다. 오늘 보고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보고와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우리가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孔星鎭 委員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내의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배기선 예, 혹시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도록……

○孔星鎭 委員 주 현안보고는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위원장 배기선 예, 현안보고는 외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孔星鎭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윤병세 차관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입니다.

오늘 배기선 위원장님과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위 위원님들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상회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백악관에서 업무 오찬을 포함해서 2시간 15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금번 회담은 참여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고 노 대통령의 세 번째 방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 발전방안과 북한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이에 추가해서 FTA 및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등 양자 관계 현안과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정상회담 및 오찬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금번 회담뿐만 아니라 공동 언론 회동 시에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재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확약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다양한 동맹 현안의 원만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당면 과제를 협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등 동맹 현안의 원만한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동맹의 미래 비전 설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지휘관계 전환 로드맵 협의 진행에 만족을 표명했습니다. 전시작통권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양 정상은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핵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결코 북한을 무력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서 양국이 그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계속 논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주 중반 한미 간 고위 실무협의 개최를 시작으로 일련의 협의가 개시될 예정이고 오늘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 간의 화해협력 노력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되어서 아시아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용 현황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미 양자 관계 현안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상승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 FTA 타결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 먼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언급하고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 정세와 국제정세에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셨고, 양 정상은 동북아 국가들 간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모색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노 대통령의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 국제적 차원의 자유 방어 및 신장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및 재건 참여 등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 측의 계속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 간 큰 틀에서의 협의를 통해 유사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고, 또한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이 양 국방 당국 간 전문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외교적 해결 모색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의 교착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 및 우리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밖에 언론 회동 시에 양 정상께서 밝히신 내용은 첨부물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상임위가 지금 열리고 있고 또 소위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에 많이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윤병세 차관보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간사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7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 위원 추가질의 시간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배기선 예, 나중에……

○최성 위원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서 국내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군의 지속 주둔 원칙, 유사시 증원 공약에 대한 확약을 하면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부분은 국내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국방 당국 간의 전문적인, 또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야 된다는 데 합의를 하셨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유예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태식 주미대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BDA 조사 조기 종료 요청 관련해서 역시 주미대사는 "조속한 조사 종료를 요청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부인하는 아주 이례적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실체적인 사실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워싱턴 한복판에서 주미대사가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씀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파트, 재무부장관과 대통령님이 만났을 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폴슨 재무부장관과는 동인이 금융 조치를 관장하는 재무부장관이기 때문에 BDA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금융 관련 법 집행 조치와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BDA 조사과정, 속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성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대단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만 합의한 것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송민순 실장이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트랙 위에 올라가 있다"는 대단히 함축적인 외교적 수사를 쓰고 있는데, 실제 알맹이와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은 지난 7월 이후로 한미 양국 고위 실무급에서 논의를 해 오고……

○최성 위원 바로바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주세요.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양국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오늘 미국으로 출장 간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과 미 측 고위 당국자 간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진전시킬 생각입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짐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6자회담에 앞서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먼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또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미국 내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북한 정권 교체 문제,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의 요구다"라는…… 부시 행정부 내의 전·현직 고위 관료가 고위급 북미 직접대화, 또 심지어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선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시 행정부 내에서의 대북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19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아주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성 위원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계속 북한 지도부를 면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또는 여러 정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

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성 위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10자 회동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10자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나라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국의 경우는 오늘 현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지금 뉴욕에 있는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통일부차관님, 지금 포괄적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북핵 문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DJ의 특사 파견, 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혹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재개, 이런 기타 노력을 위해서 의미 있는 행보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접근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국 간에 직간접적으로 교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쪽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사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지금 소강 국면에 있는 당국 간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한 내용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는 주변국과……

그러면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비공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식·비공식 접촉, 아니면 이 문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좋은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미 정상 간에 어렵게 합의한 포괄적 접근, 그리고 참으로 풀기 힘든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기타 등등의 해결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와 참여정부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칫하면 "포괄적 접근이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뭔가 알맹이가 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한 이후에, 한 달 두 달 이후에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진행되어서 한반도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적 국면으로 갈 때, 그때는 외교부와 통일부와 참여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기선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외교통상부에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언급이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아까 말씀은 앞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6자가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포괄적 접근방안 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제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교섭본부장이 미 측과 먼저 협의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융 제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언론에도 '이러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포괄적 접근방안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계획대로 제재는 계속 이루어져도 정상회담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미국을 포함해서, 어제 일본·호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엔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거나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7월 중순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재엽 위원 포괄적 접근방안이 원래 한국에서 제시한 안입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제시한 안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난 7월 초 이래로 한미 양국 고위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조율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심재엽 위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앞으로 6자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면…… 지금 미국에서 또는 일본이나 호주 등등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제재가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전작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고 정부 측에서도 일부 나오는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작권 환수'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가 되고 미사일도 완전히 폐기가 되어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완전히 깨끗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다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부분도 논의된 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과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국방부장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가지고 9월 하순에 워싱턴에서 SPI라는 실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 실무급회의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이어서 10월 중·하순에 있는 SCM에서 장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해서 앞으로의 한미 전작권 문제를 협의할 때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 당국 간에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를 좀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엽 위원 FTA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FTA를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많은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것을 방어하고 얻을 것을 얻고 또 줄 것은 주고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이것은 미국 의회와 정부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의 논의를 연기한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이러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듯이 대통령께서는 "시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가급적 조속히 진행시킨다는 원칙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많은 국민들이 FTA에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졸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또 정부도 준비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미국 부시 대통령한테 의견 제시를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하는 이러한 논의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시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재엽 위원 결국 국민들의 그러한 우려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뿐만이 아니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양국의 그러한 국내적인 관심을 다 감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중시하면서, 그러나 가급적 조속히 진행하자 하는 이런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입니다.

○심재엽 위원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는 정말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포괄적 접근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를 합의한 지를 잘 모르겠고, 또 전작권 문제도 양국 정상이 회담한 이후에 보완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 FA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1년 정도 더 연기해서, 연장해서 이것을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언론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예.

○천영세 위원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으로선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언급을 하신 게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예,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말씀은 한국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 말씀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하신 그런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지금까지 쌀과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온 거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러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제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협의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하나의 제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러한 조치를 일단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중단된 향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라기보다는 통일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지금 쌀·비료 지원 재개 말씀이시지요? 현 상황이 쌀·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입장을 바꿀 만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좀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외교통상부차관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나라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구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지금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안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도 이후에, 하여튼 대북 제재를 통해서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제가 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두 갈래의 접근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은 강력히 전달을 하되, 이와 더불어서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하는 대화노력을 더 가속화 하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을 저희가 주도해서 미 측에 제시를 했고, 이 결과를 양측이 서로 인식을 같이 해서 바로 현지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 양측 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어서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계속 협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인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그제 18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미·일·러·중 대사 초청간담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6자회담 이전이라도 북미 양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예, 그런 취지로……

○천영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종래 미국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기본적으로 미 측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북 간에 접촉을 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은 계속 밝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시바우 대사의 그런 발언도 기존 입장의 틀 내에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저희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했을 때 두 가지 기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하느냐 하는 문제와 재개되었을 때에 작년에 합의되었던 9·19 공동성명에서 나온 많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의도 사실은 재개 방안과 관련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얘기하시는데요, 당시에 합의했던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9·19 공동성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비대위 문제가 돌출되어 가지고 양측 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결국에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하고 맞바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금 전작권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전혀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러한 협의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것은 미국 자체의 하나의 전략이고, 전작권 이양 문제는 최근에 양국 간에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영세 위원 외교통상부는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관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외교통상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 전쟁이 나고 난 뒤에 미군이 주유엔사령군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56년이 됐습니다마는 56년 동안 미군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작전권을 우리에게 넘기고 떠나겠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94년도에 평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협의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전작권 협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미군이, 자기들이 떠나겠다고 한 것이 여섯 번입니다, 이번 것을 제외하고.

1953년 정전되었을 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 뒀습니다. 69년 닉슨 독트린이 터졌을 때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77년 카터 선언을 할 때도 결국 유엔군사령관이 남아서 한국을 지킬

것이 아니라 연합사령부로, 미국하고 한국이 합쳐서 연합방위체제로 남아 있으라고 더 강화시켜 붙들었습니다. 89년 넌·워너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한국이 사실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을 돌리자고 했는데, 91년 1월 1일 미국이 평시·전시 작전권을, 그때는 평시·전시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도저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평시권만 가져오겠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에 가져온 게 사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평시밖에 안 되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가 먼저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국이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붙들어 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까 천영세 위원님께서 전략적 유연성하고 전작권, 관계없냐고 했을 때 분명히 관계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답변을 진솔한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거라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붙박이식 기지로 남겨 두지 않고 자기들이 빠지기 위해서 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가만둬도 미국이 먼저 나갈 건데 왜 우리가, 얻은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가라고 내보내고 난 뒤에, 내보내는 결정을 얻어 내고 난 뒤에 이게 자주의 회복이니, 돈 안 드는 거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몰아오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대단한 업적처럼 한다는 게……

과연 정부 방침도 이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님의 생각이니까 공무원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해 가시는 건지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대단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송영선 위원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예.

그래서 이러한 전작권 전환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회담 동안에도 그랬고 또 언론 회동 시에도 말씀을……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1월 19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 주면서 아무런 부대조건도 붙이지 않고 한반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한미군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뺐다 들어왔다를 마음대로 허용한다는 것, 이것은 청와대, 국방부 이전에 외교통상부가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문제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유에서 본다면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이것부터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간까지 다 빼주고 와 가지고 칭찬받고 도움 받았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통일부에 여쭙겠습니다.

신 차관님, 북한 GNP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송영선 위원 얼마입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지금 한 260억 불 정도 됩니다.

○송영선 위원 계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250억 불, 200불 이렇게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규제가 있기 전까지 무기를 팔아 가지고 매년 챙긴 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것은 대체로 추정치이기 때문에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규모라고 얘기는 좀……

○송영선 위원 절대적인 건 없지만 미사일이 어디로 나간다, 방출된다라는 숫자 같은 건 다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송영선 위원 얼마 정도였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대체로 수천만 불에서 수억 그 사이에……

○송영선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수천만 불에서 수억"이라고 하시면 통일부차관님으로서는 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한 10억 불 이상 정도 법니다.

왜냐하면 스커드미사일 B를 1대 팔면 얼마인지 아시지요? 단순 계산에 의해서도 나옵니다. 노동미사일 1개 팔면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10억 불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구구셈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돈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대체로 나온 것이 위폐, 마약, 양주, 담배 다 나왔어요. 팔아 봐야 1년에 5000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융 제재를 하면 생필품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들에게 쌀, 비료를 주는 것은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배달시스템을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 제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국제사회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군수산업 관련 자금 유통, 정보 획득 유통 체제를 완전히 막는데……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융 제재에 대해서 동참을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포괄적 협력이라는 그런 우산하에 덮어씌워서 우물쩍 쭈물쩍하고 시간을 벌면서 다른 얘기를, 이중적인 얘기를 밖으로 내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금융 제재에 대해서는 한국도 동참한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는 미사일이나 WMD 관련된 자금 이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적인 교역 관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금융 제재를 풀어 주라는 얘기네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아니, 그러니까……

○송영선 위원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미국 국방성도 아니고 국무성도 아니고 재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제재 이것이 유일하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채널이 미사일 뭐에 관련된 돈이 아니니까 무역에 관련된 것을 풀어 주자……

○통일부차관 신언상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교역 부분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유엔안보리 결의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세계적인 금융 제재에 동참을 하실 생각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제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교역 그것은 유지된다, 지금 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방코델타에서 묶인 돈이 정상적인 교역을 하다 묶인 돈입니까?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지금 그것은……

○송영선 위원 아니,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전 세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데 조사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경률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이인영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안경률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통일부차관께서 대답을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들으면 국회의원들 앉혀 놓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든지 정부 방침을 확실히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런 대답을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답변하도록 확실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기선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좀 전에 송영선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받아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금융 제재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질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된 입장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선행한다고 만에 하나 치더라도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교역을 우리가 인정하는 선에서 간다고 할 때 그 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 것인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지금 특별한 수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인영 위원 그것을 한 가지 확인했고요.

"전작권 문제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좀 명료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미국의 이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왜 한국 측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서 진행되는 문제로만 비쳐지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것은 저희 정부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작권 회수 문제 시기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알기만 해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90년대 초반에 전시주둔군지위협정인가요? 이런 것들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 그것도 아주 조급하고 성급한 요구로만 비쳐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 간에 원칙적인 어떤 합의나 또 협의를 통한 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 즉 남북관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외교통상위원회도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니까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신 것이 있나요, 통일부차관님?

예를 들면 작전권을 우리가 전환시킨다고 할 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의 자동 개입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군사적인 동맹 관계들이 약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측의 군사적인, 안보적인 이런 취약성들이 증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굳이 논리적으로 억측한다면—억측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관계, 적어도 안보나 군사적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고 주권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감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위상이 제고되는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나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본질적으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결코 영향을 받는다든지 후퇴한다든지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볼 때도 한미관계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미관계가 약화되어서 남북관계에서 북측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다 이런 판단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제자리걸음 수준인지, 아니면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무엇이냐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관점에 따라서 차이도 있

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발 더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6자회담과 제재, 즉 대화와 제재의 병행에 대해 어떤 외견상으로 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취하는 엄중한 입장을 견제하는 일방, 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대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취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재 경향이 강화되었었는데 평화적인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이런 것들도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대화 노력을 더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차관보님 표현으로 제가 맞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 표현으로 맞춰 보신다면 그러냐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현재 제재라는 말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재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격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 보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 말고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이고 대화를 통한 어떤 노력, 예를 들면 6자회담이라든가 9·19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병행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재우선론 내지는 제재강화론 이런 것에 방점이 있던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모색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실질적인 병행 이런 쪽으로 전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과적으로 평가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큰 틀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노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한미가 돈독하게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귀국하기 전날 15일에 발표하셨거든요. 통일부차관님,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한미가 돈독하게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시냐고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그렇게 봅니다.

○김영숙 위원 외통부차관님, 그렇게 인식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저희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 측 방향을 말씀드리면, 미 측 여러 가지 레벨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이 지난 6차에 걸친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잘된 회담이다라는 것이 미 측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김영숙 위원 미 측요? 그런데 언론 해석을 보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서요, “한미 간격이 동해바다만큼 넓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대통령이 큰 이견 위로 스케이트를 지치며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한미관계가 돈독하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신문의 의견과 견해차가 큰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의 의견에 대해서도 발췌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견해차가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든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언론을 부인합니까? 인식을 더 정확하다고 하고 언론이 보도한 사실은 부인한다는 것입니까, 만족해한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또한 언론 회동 시 공개적으로 얘기한……

○김영숙 위원 지금 양국 이견을 보면 대북 제재 범위도 한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국한했다', 미국은 '2000년 대북 제재와 미사일 제재 모두 검토한다' 이렇게 했고요,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조사도 보면 우리 측은 '조사를 조속히 종결해 달라' 이랬다 했고, 미국은 '미국 법 집행 문제로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서는 우리는 '양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은 '합의한 것 없고,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미 재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BDA 북한 계좌 조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미대사가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BDA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 특히 대통령께서 폴슨 재무부장관과 만나셨을 때 BDA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미국의 금융관련 법 집행조치와 6자회담 재개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BDA 조사 과정, 속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종결하라는 그런 뜻의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주미대사가 아닌 사실을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김영숙 위원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입각해서 추가 제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 봅시다. 역시 추가적 대북 금융제재를 의결을 했어요. 또 호주 정부도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12개 기업과 개인 1명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 발표와는 달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의, 제재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국제사회에서 취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은, 지금 말씀하신 호주와 일본이 최근 발표한 조치를 포함해서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중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대북 압박조치가 지금 더 강화된 양상인 것은 인정을 하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그러한 노력을 각각 자기네 관련된 범위 내에서 취하거나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안보리 조치뿐만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방미해서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정부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 발표와는 달리 미국은 북한에 효력을 발휘할 접근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일반적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장밋빛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것은 양측 실무협의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언론 설명 문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문안입니다.

○김영숙 위원 한미 간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 바다만큼 간격이 벌어졌고 큰 이견 위로 스케이트를 지치면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만 '한미가 돈독하게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장밋빛 해석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독불장군식 외교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더욱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미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어

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가장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역시 장밋빛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星鎭 委員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의제가 정리되어서 나오면 그것이 관계부처들 간에 서로 협조를 많이 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예를 들면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 측의 의지가 미국보다 좀더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근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격으로도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요, 신 차관님?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孔星鎭 委員 그쪽하고 통일부 차원에서 조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孔星鎭 委員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孔星鎭 委員 예를 들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는 네오콘이 한반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또 "네오콘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카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포괄적 접근방안에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실무적인 의견이 전부 다 포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孔星鎭 委員 그것을 가지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할 텐데,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孔星鎭 委員 거기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DJ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그리고 "일본도 북한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핵무장을 비롯한 군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 네오콘이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네오콘이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부시 정권에서는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최근에 DJ를 방문했을 때 북한에 특사자격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는데,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孔星鎭 委員 그것은 답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논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기본적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 이것을 통일부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말고 실체적 혹은 구체적 접근을…… 영어로는 어떻게 썼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영어 표현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방 당국 간에 위임해서 전문적·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자……

○孔星鎭 委員 아니, 영어 표현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함의를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부시 대통령이 표현한 것은 'keep it out of politics' 이렇게 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니까 나는 'out of politics'라는 표현이, 그 전날 13일 의회 지도자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인계철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애국애족 세력, 소위 말해서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70%에 이르는 애국애족 세력을 오히려 반미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마치 미국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런 도덕적 불량

세력으로 편 가르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out of politics'를 시니컬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공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생각은 없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래서 영문 표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작전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그런 70%의 국민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것을 아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도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시 대통령의 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10월까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실무적이라는 것은 예산 문제도 따져 보아야 되겠고 작전계획이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되느냐 등 여러 가지를 고찰해 봐야 되니까 이것이 2009년은 커녕 2012년 혹은 2020년까지도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연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당위론적인, 정치라는 것은 당위이고 실무라는 것은 팩트인데 만약에 팩트가, 사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는 양 국방 당국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SPI 회의를 포함해서……

○孔星鎭 委員 SPI, SCM에서 이것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라 하는 것은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외교통상부에서도 그 여지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승리로 보아서는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신언상 차관님께 부탁이라면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차명진 의원이 금강산에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북한군에게 주려고 하다가 2시간 억류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진영 위원 이것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반드시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상황이 호전되면서 북한의 우리 관광객에 대한 태도도 많이 유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엄격하게 자기들 룰을 적용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 차 의원님 케이스를 보면 북한이 좀 과민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고 또 우리도 방북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북쪽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그런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관광객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관광객 요청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특히 900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반드시 북한에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남북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서도 북한의 과잉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윤 차관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설명자료를 죽 보면 대부분 기존에 나와 있던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고 다른 부분은 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냥 만나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제가 말씀드린 크게 4대 분야의 모든 의제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보다 추동력을 불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영 위원 양국이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물론 전작권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신 것이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하고 FTA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에 그동안에 장관들 레벨에서 또는 FTA 수석대표 레벨에서 협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다 강한 의지로 지지를 해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위원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어떤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인데 설명을 다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미 간에 북한 핵을 보는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 포장하기 위한 용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어떤 방법이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우리 정부 내에서는 다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나 통일부나 국방부나 다 그렇게 사전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자회담 6개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자, 그런 개념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하는 것이……

○진영 위원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한미 간 협의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다른 6자회담 4개국, 중국, 일본, 북한 이런 나라에 대한 설득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그것은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7월 이후로 이러한 고위 실무급 협의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진영 위원 그것은 한미 간에 가진 것이고……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한미 간에도 가졌고 또 한중 간에도 가졌고, 여러 가지 레벨에서 실무급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존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도 다 대화노력을 했고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정부도 발표할 때마다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했고 대화에 의한 원칙을 확인했고…… 지금 다 기존에 하던 방법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진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방법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에 관한 것인가요? 내용에 관한 게 있나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기본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외적으로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 그다음에 재개가 될 경우에 작년 9·19 공동성명에 담겨진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큰 두 가지 줄기를 하나의 조합으로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우선 먼저 협의를 하고 그 외에 일본, 중국…… 6자회담 참가국들과 더 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북한인데 북한에 설명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당연히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나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도 이러한 구상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 부분은 통일부가 설명하나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이 문제는 저희 외교부에 평화교섭본부가 있고 또 현지 외교채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 위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제재가 진행이 되면 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참해야 되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이 포괄적 접근방안은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조치와는 다른 트랙입

니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하고 더 구체화하느냐 하는 대화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리 조치와는 일단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포괄적 접근방안은 제재는 빼고 대화만을 다룬다, 이런 취지인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핵심은 대화노력에 주어져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포괄적 접근방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일단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각국의 이행조치는 별도의 트랙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제재와 대화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제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가고 대화는 포괄적 접근방안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대화가 잘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러한 다른 트랙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단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우선 제가 알기로 차관보님께는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정상회담 수행하신 조태용 북미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현장의 생생한 감들을 가지고……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평가들이 공식적인 대화 이런 데 초점이 됐지 정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양국 정상의 어떤 신뢰 어린, 친밀감 어린 이런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 이러는데 실제 직접 가까이서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정상 간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어땠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두 정상 간의 대화의 분위기도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언론회동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특별히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역대 정상회담……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가장 의미 있고 성과 있었다는 것을 미측이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평가인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상세한 사항은 100%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한미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슈들을 다루어 나갔고, 그 결과로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미측의 어떤 분이 참여정부하의 여느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논평을 했는가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미국 행정부 관리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기는……

○최성 위원 고위 관료인가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한미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 내용에 한미가 공동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의 대북제재 접근도 포함되나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이 접근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프로치만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최성 위원 잠깐만요.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미가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컴프리헨시브하게 어프로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교적인,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만 포괄적인 접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또 이미 방침을 밝힌 일본과 호주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도 그 포괄적인 접근 내용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아까 차관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안보리에 따른 조치들은 포괄적인 접근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고 그것이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이것은 외교부에서 누군가가 종지부를 찍

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태식 대사가 했던 브리핑의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나 주의조치가 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정부 내에 긴밀한 조율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내용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성 위원 조금 전 차관보께서 포괄적 접근의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다려 달라' 또 '기대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이 결과를 어느 정도 낙관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압박 쪽에 주안점이 주어졌던 국면을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제가 정부의 고위 당국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 즉 클린턴 시기에 풀어졌던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다시 추가제재 형태로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미뤄졌다, 따라서 클린턴 시기의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다시 복원되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형태의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예견됩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미국 정부에서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재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해 왔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통보를 해 온 내용이 없습니다.

○최성 위원 일본에서 이번에 이행된 추가제재 조치는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겠지요? 호주도 마찬가지이고?

○외교통상부북미국장 조태용 일본이 취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의 맥락 속에서 취한 조치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 위원 차관보님, 오늘 언론에 북한이 핵기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 내 간첩 침투 노력을 했다…… 엄청난 내용인데 그것을 미국 기자가 최근 출간 저서에서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외교부에 전문이나 정보보고로 들어온,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 위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아베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데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아베 입장, 그리고 외교부의 대응방침은 정해졌어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베 신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민감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통일부 차관님, 하나는 당부드리고 하나는 질문드리는데, 조금 전에 진영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동료 야당의원이 금강산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당국이 보인 고압적 태도는 어떤 경우도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같은 당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항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서 최근에 북한당국이나 공식 기관지에서 국내 정치정세를 전망하면서 야당의 특정 후보나 또는 어느 야당이 집권 시, 기타 운운하는 그런 비판적인 발언은 결코 남북관계나 한국의 정치상황에 추호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어느 정당에게도, 한국 정치에도 또 남북관계에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평화통일특위가 배기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방문을 하고 인도적 지원 문제 또 개성공단 시찰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성사가 됐는데 여야가 함께 금강산, 개성공단 방문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측이 어떤 특별한 반응이나 또 이 자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특별한 반응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 우리 의원님들 방북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북쪽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여야 의원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이 부분을, 일단 성사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평화통일특위가 이 계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북한에 여러 가지 참사가 발생했다는 기존의 정보 보고나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해 오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북측이 보험금 요청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참사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최근 일련에 제기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오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대체로 저희 관계기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오늘 윤 차관보님께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으로서는 정상회담에서 큰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작전권도 우리가 환수 안 해 달라고 해도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다른 문제, 핵 문제라든가 이게 그들이 원하는 도표대로 우리한테 지금 책임을, 숙제를 다 던져 놨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인한 추가제재라든가 비대위 문제라든가 6자회담 복귀 문제라든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가장 큰 만족을 얻었는데 우리는 뭘 얻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윤병세 제가 보고드린 4개 분야에서의 아주 원만한 협의 결과가 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미측이……

○송영선 위원 원만한 협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줬으니까.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원만한 협의 결과를 얻는 것이 업적이라고 치면 우리 것 다 포기하면 가장 원만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얻었습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을 계속하고 유사시에 증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어떤 조건에서 증원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SCM이나 SPI나 실무선에서 얼마나 많은 돈과 부담을 안아야 될지 모릅니다. 대강의 미국이 원하는 큰 흐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얻은 게 없어요. 완전히 이것은 수사입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해요. 얻은 게 전혀 없습니다.

주한미군만 보십시오. 대북억제가 아닌 자기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가고, 그렇다고 지금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루즈하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손들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4일에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폴슨 장관이 16일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삐를 더 조여라, 금융제재 다 같이 동참해라, 절대적인 예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눈을 닦고 봐도 과연 이번에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주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런 외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갖다 바치고 미국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외교였다, 이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은 모르니까 껍질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에, 제가 무식해서 혹은 무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파악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얻은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볼 때 저는 얻은 게 전혀

없다, 준 것밖에 없다……

그다음, 신 차관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8월에 미 재무성에서 스위스 비밀계좌에 김정일 돈으로 보이는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보도 봤습니다.

○송영선 위원 보도를 보셨습니까, 통일부 자체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팔로우업을 하고 계십니까?

보도를 보시기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남의 일처럼 던져 놓고 있군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것은 다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추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영선 위원 잘 모릅니다.

국정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국정원은 통일부가 한다고 하고 통일부는 국정원이 한다고 하고, 어디가 진짜입니까? 전혀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금융제재를 했습니다. 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 하면 북한 총생산량,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의 무역제재로만……

○통일부차관 신언상 일본에 국한해서요?

○송영선 위원 예.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것은 아직, 지금 문제의식은 갖고 그것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영선 위원 차관님,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 북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 그것을 계산도 안 해 보고 하려고 한다는 게……

북한 GDP에 7~8%의 영향을 줍니다. 약 12~15억 달러 감소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로 한 것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방에 오시면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통일부에 앉아 가지고 도대체 제재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질문을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주시고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방향도 나와 있지 않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내 우리은행에 북한이 도움을 요청했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계좌 개설을 작년……

○송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게 작년 9월에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시장경제라고 맡겨 놓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카오 델타뱅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은행과 거래를 하던 은행이 3개가 빠진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송영선 위원 왜 했어요? 정부가 빠지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사업에 당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부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은행이 판단하라, 도대체 통일부의……

○통일부차관 신언상 아닙니다. 송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미 금년 3월에 다 종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은행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북한 구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금년 봄 3월에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 자체 내에서 판단을 했고 통일부에서는 관할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요? 그 정확한 방침을…… 추가적으로 이 자존심 강한 북한이 그것을 요청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2400만 달러의…… 사실은 지난 4월에 탕자쉬안이 갔을 때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니까 비밀리에 갔을 때 김정일이 한 얘기가 '금융제재 해결해 주면 나가겠다', 김영남을 시켜서 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려는 것도 결국 금융제재 해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가는 쇼만 하는지…… 가든 안 가든 똑 같습니다. 문제는 금융제재 해제에 대해서 중국이 손을 들어주는 것을 북한이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추후에 다시 이와 같이 요구할 때 통일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은행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저희 1차적인 입장입니다.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최성 위원 간단한 부분인데, 지금 차관님 답변에서 명료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의도와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 6자회담 복귀냐, 대북 금융제재냐 하는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단순히 BDA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 내에 있는 네오콘 중심으로 해서 김정일 정권의 고사전략, 정권교체 전략으로 나온다는 위기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개발, 또는 대량 살상무기, 기타 등등 위폐 문제, 이런 악의 축 국가이기 때문에 악의 축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BDA 문제를 넘어서서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은행에 있는 비밀계좌 문제는 사실은 실제 여기저기서 나온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 대단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조금 전 질문에서 '미국의 레비 차관이 통일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 40억 달러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차관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최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적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차관님 말씀이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확산되느냐 하면 미국의 레비 차관이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 비밀계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차관님 첫 번째 답변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질문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미봉으로 답변하게 되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레비 재무차관이 저희 장관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봤다는 내용은 뭡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러한 40억 불 비자금 수사 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본, 뭔지도 모르는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를 갖고 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통일부차관 신언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 40억 불에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자금거래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와치(watch)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최성 위원 초기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차관님 말씀 들으면 김정일 스위스 계좌 문제에 대한 40억 달러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정도입니다.

송영선 위원이 물은 질문은 '레비 차관이 통일부에 가서 스위스은행에 있는 비밀계좌 40억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통 큰 사안이 아

니지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아는 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이 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네요.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아닙니다. 레비 차관이 저희 통일부에 온 적도 없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잘못 포착했던 것 같은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성 위원 이게 참여정부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우선 야당의원이 공세적인 질문을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봤다는 내용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봤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관계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아닙니다' 반박 논평 나오고…… 이게 주미대사관과 외교부와 청와대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고 이런 데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르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의 윤병세 차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신언상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든 우리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우리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남북 관계를 해치거나 괜히 트집 잡아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남북문제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민족 이익을 도모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오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저희들이 남북 관계를 잘 끌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4개의 소위를 만들었던 것이고 이 4개 소위가 말로만 통일 운운하고 그리고 행동은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고, 또 국민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차관님, 오늘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좀더, 물론 국회가 직접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일부가 하시는 일에 좀더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국민과 함께 제공하는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 차관님,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남북 간에 얘기가 되어서 9월 26일, 27일 양일 간에 금강산 온정리 마을을 방문해서 저희가 수해복구 지원 차원에서 의약품과 약간의 식량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저희 특위 차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여야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서도, 미사일 얘기가 오가고 여러 가지 경제제재가 오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뭔가 걱정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나가고 그것을 이룩해 내겠다는 굳건한 민족의 의지를 실현해 내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격려하고 거기서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오늘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에 안경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공성진 위원

님,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외교통상부의 윤병세 차관보님, 그리고 신언상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소위 명칭	소위원장	교섭단체	소위원명
개성공단사업 소위원회	오영식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최 성 지병문
		한나라당	정희수 서상기 송영선
		비교섭	천영세
농업기반 조성사업 소위원회	우윤근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김형주 한병도
		한나라당	심재엽 김재경
		비교섭	이낙연
보건·의료협력 소위원회	진영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승희 이상경
		한나라당	김영숙
금강산관광·문화교류발전 소위원회	안경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이인영 정청래
		한나라당	공성진 황진하
		비교섭	류근찬

○출석 위원(20인)

김형주	공성진	김영숙	김형주
류근찬	배기선	송영선	심재엽
안경률	오영식	우윤근	이낙연
이상경	이인영	장복심	지병문
진 영	천영세	최 성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태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차관	신언상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천식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외교통상부

차관보	윤병세
북미국장	조태용